

제 ①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밑줄 친 문장 성분 중, 주성분이 아닌 것은?

- ① 어머나, 키가 많이 자랐구나.
- ② 우리 언니는 새 옷을 입었다.
- ③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④ 작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2. 다음 () 안에 들어갈 공통된 말로 알맞은 것은?

()는 어느 한 시기에 사람들에 의해 널리 쓰이는 말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 ()는 대체로 그 시대상을 반영하여 ‘시대의 거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얼짱’, ‘몸짱’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① 전문어 ② 고유어 ③ 지시어 ④ 유행어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어리다’라는 말은 원래 ‘어리석다’는 뜻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변했다.

- ① 규칙성 ② 역사성
- ③ 자의성 ④ 창조성

4. 자음 동화가 나타나는 단어가 아닌 것은?

- ① 국물 ② 국화
- ③ 먹는 ④ 달는

5.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알맞은 것은?

품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형태의 변화 여부이다. 단어들 중에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것이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 ① 오늘 하루는 지루하고 참 길었다.
- ② 나는 달콤한 사과를 무척 좋아한다.
- ③ 파란 가을 하늘은 높고 매우 푸르다.
- ④ 나는 학교에 가고 내 동생은 유치원에 간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벚꽃 지는 걸 보니

㉠ 푸른 솔이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 김지하, 「새봄」 -

(나) 우리가 눈발이라면

㉡ 허공에서 쭈뼛쭈뼛 훑날리는

㉢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6. ㉠에 쓰인 심상과 다른 것은?

- ① 뻘뻘 울어 주면
- ② 노오란 배추꽃 이랑을
- ③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 ④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7. ㉡~㉤ 중, ㉤과 함축적 의미가 비슷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8.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린 시절을 동경한다.
- ② 돈과 명예를 중요시한다.
- ③ 절대적인 고독을 추구한다.
- ④ 소외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험사리 눈에 띄지가 않았다. 저쪽 출입구로 밀려가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면서 걸어 나가는 상이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지는 않았다.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는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이상한 일인데……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부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가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 만도는 눈앞이 노오래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중략)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곧장 달랑달랑 춤을 춘다. 너무 급하게 들이부어서 그런지 만도의 뱃속에서는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린다.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훌훌 내뿜어 본다. 정신이 아른하다. 좋다.

“진수야!”

“예.”

“니 우짜다가 그래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됐십니꼬. 수류탄 쪼가리에 맞았습디.”

- 하근찬, 「수난 이대」 -

9. 윗글에 드러난 시대적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쟁으로 인해 다친 사람들이 있었다.
- ② 신분제의 동요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 ③ 경제 개발의 결과로 도시 빈민이 늘어났다.
- ④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도시가 번창하였다.

1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수를 만나지 못해서
- ② 갑작스런 편지를 받아서
- ③ 진수의 한쪽 다리가 없어서
- ④ 들고 있던 고등어가 무거워서

11. 밑줄 친 단어 중, 접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철수는 책가방을 새로 샀다.
- ② 영희는 덧버선을 신고 있다.
- ③ 그 사람은 맨손으로 성공했다.
- ④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햇밤을 보내 주셨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어머니는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 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에는 한곳에 앉아 있는 내가 답답할까 봐, 미리 내게 어디에 숨을지를 말해 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 안에서 중앙이 아니라 구석 쪽이었지만 내가 앉아 있는 계단 앞이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나는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를 해 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는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깨엿 장수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만 찢렁이며 내 앞을 지나더니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엿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그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지는 몰랐다.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장영희, 「괜찮아」 -

12. 윗글에서 ‘나’를 위해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 아닌 것은?

- ①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아 주었다.
- ② 놀이를 할 때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 ③ 골목 구석 쪽에 있던 ‘나’의 집 계단 앞을 놀이 무대로 삼았다.
- ④ 술래잡기를 할 때 미리 내게 자신이 어디에 숨을지를 말해 주었다.

13.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 ②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용기를 얻을 수 있어.
- ③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살 만해.
- ④ 어려움이 있어도 선의와 사랑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어.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북해 용왕은 우연히 병이 들었는데 토끼의 간이 특효약임을 안다. 용왕은 별주부(자라)를 보내 토끼를 잡아오라고 한다. 별주부는 토끼를 꼬드겨 용궁으로 데려간다. 용왕은 토끼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라고 명령한다.

토끼는 절망함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되,
 ‘옛말에 이르기를 ㉠고 하였으니, 어찌 죽기만
 생각하고 살아날 방책을 헤아리지 아니하리오?’
 하더니 문득 한 묘한 꾀를 생각해 냈다.

(중략)

잔치를 마친 후, 용왕이 곁에 선 신하에게 명하여 토끼를 모셔다가 편히 쉬도록 하였다. 토끼가 따라 들어가 보니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병풍과 진주로 엮은 주렴이 사방에 드리워져 있었고, 저녁 식사를 받고 보니 인간 세상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진수성찬이었다.

[A] 그러나 토끼는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기만 했다. ‘내 비록 잠시 속임수로 용왕을 속였지만, 여기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겠지.’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튿날 용왕을 뵙고 아뢰었다.

“용왕님의 병환이 심상치 않은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육지에 나가 간을 가져오고자 하오니, 바라웁건대 저의 작은 정성을 굿어 살피옵소서.”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별주부를 불러들였다.

“그대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다시 토 선생과 함께 인간 세상에 나갔다 오라.”

하니, 별주부는 하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려 명을 받들었다. 용왕은 다시 토끼에게 당부하기를

“그대는 속히 다녀오라.”

하고 진주 이백 개를 주며 말하였다.

“이것이 비록 변변치 않으나 과인의 정성을 표하기 위해
우선 주노라.”

토끼가 공손히 받은 후 용왕에게 하직하고 나오니, 수궁의 모든 신하들이 대궐 문 밖에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그러나 자가자리만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토끼는 다시 별주부의 등에 올라앉아 너른 바닷물을 건너 육지에 이르렀다. 별주부가 토끼를 내려놓으니, 토끼는 기쁨에 겨워 노래하되,

“이는 진실로 ㉠ 그물을 벗어난 ㉡ 새요, ㉢ 함정에서 도망
나온 ㉣ 뱀이다. 만일, 나의 묘한 꾀가 아니었다라면, 어찌
고향 사치를 다시 볼 수 있었으리우?”

하며 사방으로 팔작팔작 뛰놀았다.

별주부가 토끼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말하였다.

“우리가 갈 길이 바쁘니, 그대는 속히 돌아갈 일을 생각하라.”
토끼가 큰 소리로 웃으며,

“미련한 자라야, 뱃속에 든 간을 어이 들고 낼 수 있겠느냐? 이는 잠시 나의 묘한 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너희 용왕과 수국 신하들을 속인 말이로다. 또, 너희 용왕이 병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나?”

- 지은이 모름, 「토끼전」 -

14. ㉠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 수레가 요란하다.
- ②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③ 금강산 구경도 먹은 후에야 한다.
- ④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15. [A]에 나타난 토끼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유롭다 ② 자랑스럽다
③ 할가분하다 ④ 조마조마하다

16. ㉠~㉤ 중, ‘토끼’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a, b ② a, c ③ b, d ④ c, d

17.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끼는 별주부를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 ② 토끼는 용궁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한다.
- ③ 별주부는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려 한다.
- ④ 토끼는 육지에 도착하자 별주부에게 속마음을 말하고 있다.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음식 보관이 어려웠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 냉장고가 생기면서 이웃과 나누어 먹던 풍습이 사라졌다. 냉장고에 넣어 두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천천히 우리 가족만 먹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냉장고는 자꾸만 커져 간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팔고 남은 것을 이웃과 정답게 나누어 먹던 소박한 모습이, 저마다 자기 것을 냉장고에 쌓아 두고 나누어 먹지 않는 삭막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18. ㉠에 들어갈 접속어로 적절한 것은?

- ① 비록 ② 그런데 ③ 왜냐하면 ④ 예를 들어

19. 냉장고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판적 ② 긍정적 ③ 예찰적 ④ 환상적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S# 93. 병원 병실 / 밤

경숙: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멋대로 굴러 가면서…….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 그럼 난 살 수가 없을 거 같았거든. (눈물을 떨구며) 애가 기억하더라고. 옛날에 동물원에서 잃어버렸던 걸……. 기억나지, 당신도? 사실은 말야, 그때 내가 초원이를 버렸던 거야. 사람들 틈에서 손을 놓았지.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저 살자고 애를 버렸던 엄마가 이제 또 제가 살려고 애를 그렇게 한평생 못살게 군 거야.

희근: 당신 그때 스물일곱이었어.

경숙: 지금은 아니야.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 애가 힘들어도 힘들단 소리를 안 한대. 내가 늘 그랬거든. 초원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지? 힘들지 않지? 좋지? 좋아하지? 십오 년을 그렇게 애를 다그쳤어. 그래서 이제 힘들다, 하기 싫단 말을 아예 못 해. 어떡하지? 우리 초원이 불쌍해서……. 어쩔 초원이는 엄마가 자길 또 내버릴까 봐 그렇게 열심히, 힘들단 소리도 못 하고 지금껏 산 거 아닐까, 여보? 어떡하지? 그럼 나 정말 지옥 갈 거야, 그렇지?

(나) S# 112. 운동장 / 낮

초원: 초원이 완주했어요. 사십이쯤일구오 천천히 뛰었어요!

정욱: (눈물이 그렇그렁) 그래 인마. 잘했어! 최고야!

(중략)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초원의 얼굴. 그렇게 영원히 카메라를 바라볼 것 같더니, 돌연, 마법이 풀리듯 천천히 근육들이 움직이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 찰칵! 정지 화면으로 잡힌 초원의 얼굴. 그것은 완벽한 스마일. 천천히 줌인¹⁾되는 초원의 웃는 얼굴. (디졸브)

- 정운철, 송예진, 윤진호, 「말아톤」 -

1) 줌인: 영화 촬영 기법의 하나.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시킨 채 줌 렌즈의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촬영물에 접근하여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촬영한다.

20. 위와 같은 글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막과 장으로 구성된다.
- ㄴ.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 ㄷ.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 ㄹ. 촬영과 편집을 위한 특수 용어가 사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1.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경숙은 초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 ② 초원이는 힘들다는 소리를 잘하는 편이다.
- ③ 경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 ④ 경숙은 초원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22. (나)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안감 ② 행복감 ③ 우울함 ④ 고요함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두루마리. 석가탑 사리함 안 비단보에 싸여 있던 그 두루마리는 한지로 만들어졌다.

(나) ‘한지(韓紙)’는 한국 고유의 종이를 이르는 말이다. 조히(종이), 조선종이, 창호지, 문종이, 참종이, 닥종이 등으로 불렸던 우리 종이가 한지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중반 서양 종이인 ‘양지(洋紙)’가 들어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다) 한지를 창호지로 쓰면 문을 닫아도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를 잘 흡수해서 습도 조절의 역할까지 한다. 흔히 한지를 ‘살아 있는 종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양지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습기에 대한 친화력도 한지에 비해 약하다. 한지가 살아 숨 쉬는 종이라면, 양지는 뻣뻣하게 굳어 있는 종이라고 할 것이다.

(라) 한지의 질을 향상시킨 조상들의 비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지 제조의 마무리 작업인 ‘도침(搗砮)’이 바로 그것이다. 도침이란 종이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풀칠한 종이를 여러 장씩 겹쳐 놓고 방아로 골고루 내리치는 과정을 말한다.

23.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양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를 이르는 말이다.
- ② 한지의 질을 향상시킨 조상들의 비법으로 ‘도침’이 있다.
- ③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두루마리는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 ④ 우리 종이가 ‘한지’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고려 시대부터이다.

24. (가)~(라) 중, 다음과 같은 설명 방법이 쓰인 것은?

음성은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한다. 또한, 소리이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그 순간 그 장소에만 존재하고 곧바로 사라진다. 반면에 문자는 기록이기 때문에 시각(視覺)에 의존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이 가능(可能)하며, 그 기록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25. 밑줄 친 ㉠~㉣ 중,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은?

텔레비전은 활용만 잘하면 인간 생활에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 텔레비전은 대화 상대가 필요한 현대인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 텔레비전은 복잡한 일상 속에서 지친 현대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락 수단이 되기도 한다. ㉢ 텔레비전이라는 유사 환경에 중독되어 실제와 가상 현실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 텔레비전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창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텔레비전은 인간에게 좋은 친구도 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며,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준다.

① ㉠ ② ㉡ ③ ㉢ ④ ㉣

※ 확인사항

답을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하였는가?